

제12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0. 12. [월] 09:30 ~ 13:00
장 소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1명 [재적인원 11명 중 11명 참석]
주요내용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일부 조정 ○ 시나리오워크숍 세부 진행프로그램 확정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일부 조정 [재선정] - 불참자 발생에 따른 대체 인원 재선정(1명) ○ 시나리오워크숍 세부 진행프로그램 확정 - 옛 대한방직 부지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기 → 주요 기능에 대한 공간구성 [용도별 시설 등] - 공간구성에 따른 의제 사항 연관 검토 [기반시설(교통 등), 상권 영향, 계획이득 환수 등] · 제1일차 : 공론화 배경 등 교육 및 대한방직 부지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기 ※ 직접적 이해관계자(토지소유주 : (주)자광)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 · 제2일차 : 미래상을 토대로 공간구성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장·단점 토의 · 제3일차 : 시나리오 재구조화 및 최종 시나리오 도출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2020. 10. 12. 14:00)

제12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 공론화 간사 ○○○입니다. - 벌써 12번째 위원회가 개최 되었는데요. 여러 일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시나리오 워크숍을 앞두고 있는 회의라서 그런지 모처럼 전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고요.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제12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 시에서 진행 상황 먼저 듣고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선 시청 홈페이지 시민 의견 수렴은 한 주 동안 한 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20대에서 30대 수도권으로 진출을 막기 위해서 대한방직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 한 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분들 중에서 정책 도시 관리 행정 분야 한 분이 계셨습니다. ○○○ ○○○님이셨는데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시다 하셔서 저희가 지금 대체 인원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설명드리고 현재 ○○○ ○○○○님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먼저 그간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 위원님이 상권 분석에 대한 것, ○○○ 위원님이 사전 협상제에 관련한 계획이득 두 가지 내용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상권 분석 발표>
위원장	- 네. 발표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 없습니다.

#.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팀 소개 (모더레이터 사전 워크숍 진행 보고)

위원장	-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7일부터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 김상규 박사님이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 공론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은 분이십니다. - 그동안의 자료도 검토하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김상규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나름 분석했고, 좀 도움이 되실 얘기를 먼저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락을 받고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동안의 맥락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았고요. - 지난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위원회 하였던 날인데 제가 오후에 위원장님과 단장님, ○○○ 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 그리고 나서 지난 10월 9일에 저희가 진행할 실제 모더레이터들과 9시간에 걸쳐서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경험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 경험이 항상 유추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또 지금 3일 차 진행이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들이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나중에 토론회 진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 상에서는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실제 토론회가 진행될 전주시혁신센터에 저희들이 실제 방문을 하고 현장 상황 체크하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좀 더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토론의 진행과 3일 프로그램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듣기로는 ‘위원회의 입장과 생각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견을 먼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한 내용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몇 가지 디테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아마도 의원들이 결정해주실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먼저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렸습니다. - 자료는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모더레이터 사전 워크숍 결과라는 페이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의논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워크숍을 지난 10월 9일 날 저희가 9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진행을 위한 프레임은 저희 나름대로는 정해 뒀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 관련한 시민공론화의 전제를 저희는 크게 두 개로 모았습니다.

- 첫째는 이후에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기법을 선택하신 이유도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슈가 너무 구체적이고 좁은 이슈에 그것도 찬반 토론회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 시민의견을 창의적인 집단 지성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전제로 저희는 정리를 해보았고요.
- 두 번째는 사안의 시작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자광의 계획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안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는 전제 안에서 의논해서는 ‘이건 자광 계획이 옳느냐, 어떤 면에서는 과연 그런 걸 공론화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쟁으로까지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고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넓혀서 의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전제를 정해보았습니다.
-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위원님들의 방향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집에도 용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배포된 자료 중심으로 보면 7쪽에 시나리오 워크숍 의제 및 논의 내용에서 5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공간구성 이렇게 틀을 정해주셨거든요.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일반시민 여러분들까지 포함되는 워크숍에서 너무 좁혀진 때로는 법적, 기술적 논쟁이 주된 논쟁이 되면 제한이 되는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이 정도 의제라고 하면 저희는 조금 더 시민 여러분들이 논의하시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뒤쪽에 보면 자료집입니다. 다들 32쪽을 보시면 계속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32쪽에 보면 세부의제라는 제목으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개가 있고. 앞에 가/나가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그다음에 용도는 변경 시 개발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세부 쟁점으로 바꾸고 의제와는 좀 구분을 하던가, 같은 내용입니다 마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 정리는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시민 여러분들이 논의하시기에 조금 더 적절한 내용들로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생각하는 자료집에 어쨌면 전주 시민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전주시의 미래상과 대한방직 부지의

- 미래상은 연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유리되거나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함께 의제 연관성도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 뒤에 2쪽에 가면 의제 2라고 해서 공간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모뎀레이터들과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문제를 넓혀서 그냥 키워드로 툭 던졌을 때 시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프레임은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고 봤을 때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파트, 녹지, 공원, 공공시설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함께 논의하실 수 있게 좀 틀을 만들어주신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 의제를 너무 자세하게 제시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판 짜놓고 우리 부른 거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틀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모뎀레이터들 워크숍에 모아진 의견이었습니다.
 - 조별 편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조 편성은 1일차에는 기존의 4그룹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2명의 그런 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2일차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비전이 만들어지면 이 4그룹이 좀 더 교차하거나 섞일 수 있는 그런 조 편성을 일단 원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아마 진행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은 하나입니다. 특히 2그룹에 속해 있는 전문가그룹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적절하게 두 분 정도 균형이 좀 맞도록 적절한 의견 표명 없는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으면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3일 차는 처음 만들었던 1차 조 편성으로 되돌아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토론할 때 적절하지 않을까. 고민들이어서 일단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께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요청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 시나리오 선택 기준이 처음 출발하는 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룹별로 2개 이상은 자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3개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3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해서 위원회가 최종결정하도록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1일차 프로그램의 그 기준을 어떤 형태로든 짧게라도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10분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선택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택 기준에 가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약간은 블라인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 AHP 방식도 있고, 쌍대 비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단순화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내 의견이 이렇게 반영됐구나라는 방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투표 방식보다는 끝까지 숙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3일간의 시간에 그나마 이렇게 좁혀서 하는 곳에서는 일정 정도의 기법적 도입과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좀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 관련해서는 자료집이 변경되어왔던 버전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의 경험에서 본다면 큐엔에이나 이쪽 파트가 지금 현재 오늘 나온 곳은 줄어들었는데 아마도 첫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시민 여러분 32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설명은 잘해주시겠지만, 특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설명 과정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 있고요.
- 마지막으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입니다만 자료집 만드실 때 이 부지와 관련된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A3 정도의 용지로 크게 하나는 자료집에 붙여줘야 하고 아니면 별도 용지로 인쇄를 해서 약간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가 된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당일 날 오셔서 전주시의 미래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에 관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논의한 과정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1차 프로그램을 저희가 거칠게나마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야 이해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고민과 생각을 위원님들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 그날 10월 9일에 저희가 사전 워크숍 하면서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은 지금 보시면 11시 5분에 쟁점 토의 및 질문 작성이라고 해서. 지금 세부 쟁점이라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라든가 용도 유지 개발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앞에서 토론을 하고 가야 한다. 시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해 하고, 그것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자꾸 비전 그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다고 하는 의견이 모더레이터들의 절반 정도였고요.

	- 절반의 모더레이터들한테는 그 쟁점이 맨 앞부분에 논의된다면 이건 전형적인 자광 프레임에 대한 오엑스 분위기로 쏠리게 되는데 그건 이 워크숍을 설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뜻과는 굉장히 배치되거나 위험하지 않느냐. 이 논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조심스러운 최종적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고 한다면 세부 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의 시간은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모든 모더레이터들이 중심을 잘 잡고 위원회에서 또 그날 모두가 참여해서 QnA까지 참여를 해주시니까 적어도 그런 니즈를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이고요. 저희들의 고민의 지점은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자광의 발표가 첫날 맨 뒤쪽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미래상을 어느 정도 의논한 다음에 발표가 오는 것도 그런 고민의 지점이 아마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3일 차는 전체적으로 장단점 토론, 보완 또는 시나리오 재구조가 되면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을 3일 차까지 전체적인 편성에 담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보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는 그 디테일 안에서 개인 의견을 반영하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매우 고민스러운 것이 실제 진행하면 아크릴판 다 설치하고 마스크까지 쓴 상태에서 워크숍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불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예 아크릴 판은 없애고 거리를 조금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조와 조 사이의 소음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예컨대 이제 파티션 같으면 좀 높게 친다든가 그런데 그러면 또 공간이 답답해서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시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시나리오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논의

위원장	-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내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정리해야 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까지 나중에 얘기할 의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까. - 진행의 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동감한 얘기입니다. - 다만 의제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좀 참조해 주실 것은 1 비전, 2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매우 좋으나, 3, 4, 5 기반 시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계획이득.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계획이득이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좀 어떨까 하는 요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제 얘기할 때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으로 두 번째, 그 자료집 앞부분에 비전의 경우 전주시의 미래상과 연관성을 강조하도록 자료 앞부분에 예시적 자료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자료집에 조금 참조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다음에 의제 두 번째 주제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지구단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겠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 의제할 때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조별 편성 기준에 있어서 2차는 전문가그룹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자 그런 뜻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그리고 전문가분들께도 사전적으로 의견을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일단 1차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요.
위원장	- 그럼 이 부분도 나중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논의할 사안인데 시나리오 개수를 그룹별로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2개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2개 했을 때 3개가 나왔다. 그랬을 때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의제하고 얘기가 되어워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준 같은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드려야죠. 시나리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 공론화 위원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을 결정해 주어야겠습니다. - 그리고 거기 토의규칙 등은 자료집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집에 토의규칙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자료집 관련해서 주변 지역을 포함한 도면을 좀 넓은 도면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자료집에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3p 1일 차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4세천의 자광 사업계획 설명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은 조금 나옵시다마는 기본적으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더 크게는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제4세션을 자광 사업계획 설명이고 그다음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이것은 맞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발표는 어디서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자광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문단에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동의하는데요. 뒤로 빼자하는 동의를 했는데 4세션이 15분, 15분씩 하고 질의응답도 없이 저게 끝나버리면 물론 저희가 계속 대한 방직 부지의 미래상을 토론할 때도 일정 부분 자광 안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에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 4세션 이후에 뭔가가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 좀. 그래도 3하고 4하고 좀 바꿀 수가 있는건지, 바뀌도 되는건지.
○○○ 위원	- 그래서 저도 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 사항을 큐앤에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표를 하고 큐앤에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얘기를 했었어요.
○○○ 위원	-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요. 자광이 발표하기로 하는데, 모든 논의에 앞서서 자광 발표가 먼저 들어가면 자광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고가 될 여지가 때문에 첫 날 마지막이나, 둘째 날 앞부분에 배치해서 기본적으로 공론화 참여단에 대한 이해나 정보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자광의 발표를 해야하는 순서의 문제가 있었고요. - 그다음에 발표시간이나 질의응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최소 기본이 되는 것, 동영상 빼고 해야 한다 등등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최소 기본으로 되는 내용을 하고 이걸 좀 객관화하기 위한 동일한 시간에 발표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질의응답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뒤에 별도로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형태의 방향을 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는 전주시 도시계획 및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할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4세션에 그 내용과 함께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그 어떤 사안을 설명을 한다, 그 시간을 제4세션으로 갖도록 하면 되겠죠.

○○○ 위원	- 위원장님, 그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는 어차피 저희가 2일 차부터 시나리오를 쓰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의제가 공간구성이잖아요. - 어떻게 보면 공간구성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두 번째 날 첫째 세션에 전문가로부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발표토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간구성으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게 의제와 연결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다음 세션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 또 한 가지는 오늘 공론화 의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연관 검토해야 하는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는 했지만, 조금 보완을 해본다면 두 번째 연관 검토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발표를 좀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2일차 미래상 하기 전에 발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자광(안)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동시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지, 별도의 미래상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 듣는 것이 좋을지 시간적으로 논의해주시죠.
○○○ 위원	- 제4세션에서 자광이 발표를 하죠? 간략하게 전주시 도시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에 비춰보았을 때, 자광 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자간 균형을 이루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 ○○○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광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광 안에 대해서 기술자문단에서 우려되는 사항,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2일차에서는 순수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위원	- 자광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 그 이후에 우려되는 것이 인허가에 대한 설명은 빠지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 인허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동시에 저희 다 얘기하는 거죠. - 그러니까 첫날에는 자광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이슈만 하고, 두 번째는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거죠. 그러면 기술자문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미래상 하기 전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약 10분 정도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 위원	- 어차피 2일과 3일 프로그램은 우리가 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다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2일 차에 쉬었을 때 결국에는 똑같은 네 팀, 동 수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아까 전문가들 배치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동 수가 안 될 경우도, 동 수로 만약 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경우의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비전별로 테이블을 구성한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날 비전이 정리가 됐는데 2개 정도로 나온다면 저희가 구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 3개가 나왔다면 테이블이 3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 그런데 원칙은 전문가 그룹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3개 중에 나는 이 비전이 나의 이상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요. - 그다음에 정책 그룹을 나누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는 어느 한 테이블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테이블 모더레이터들이 역할을 해서 적절하게 나누는 정도로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우리 ○○○ 위원님이 하기로 한 계획이득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의제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님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밥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나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국으로 보았을 때에, 도시락 이외에 다른 방법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 2일차 일정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주시의 미래상이 정해지고 대한방직 부지도 거기에 맞춰서 그 미래상에 맞춰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기 미래상에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이라고 해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시의 미래상보다는 많이 구체화된 의미가 있고, 그런데 1p에 전주시의 미래 또는 기본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공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전주시의 미래상보다는, 그거는 기본으로 저희가 좀 참여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부지 중심의 미래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내에서 타임테이블을 구성할 때 전주시의 미래상과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을 세션을 좀 구분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의논이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전주시민이라면 조금 난잡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일단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 위원	- 앞에 이거는 전주시의 방향인가요
시나리오 워크숍 사회자	- 그렇죠.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맥락 자체는 모더레이터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전주시의 미래상은 어디 요약된 건 있는가요?
○○○ 위원	-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그거 잘 올려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 추가가 있으면 시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 의제 관련 논의

위원장	- 그러면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 의제에 대한 논 의를 전주시 시나리오 워크숍 의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위원님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공론화 위원회에서 설정한 5가지 의제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및 사용 변경 가능성. 그다음에 용도 유지 또는 변경 시 개발 방향, 개발이익 환수 계획 및 적정 비율, 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이렇게 5가지가 의제고요. -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인 공론화가 지금 저희가 계속 이 프레임 이 시나리오워크숍에 너무 초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나리오 보시면 물론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지금 현재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는 시나리오워크숍 + 공론조사입니다. - 그러니까 앞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서 공론조사를 해서 최종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워크숍에서의 의제와 공론조사 의제가 지금 접근방식이 약간 같은 듯 다른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두 개를 어떻게 믹스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론화 의지에 대한 좀 명확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지껏 외부에 공론화 의제는 이런 거라고 계속 보도자료도 나갔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 - 지금 그런데 시나리오워크숍의 프레임은 일단은 미래상과 공간구성을 논의해서 대충의 윤곽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의 연관된 검토사항을 의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사항을 의견을 모으자고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시나리오 최종 나온 시나리오 가지고 공론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민의 의견이 모아진 걸 가지고 어쨌보면 1번이나 2번에 있는 용도 변경 가능 여부랄지 타 용도 변경 가능성은 위원회에서 그 두 결과를 모아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위원회에서 그럼 용도 변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재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가능하다. 이런 결론은 저희 위원회가 그 결과를 취합해서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단계에서의 역할과 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히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서 이 공론화 의제를 기존에 있는 의제를 그대로 살리고 시나리오 워크숍의 의제를 지금 프레임에서 미래상과 공간구성 연관검토 사항 이렇게 갖고 가는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봐서 이렇게 분리해서 가고, 나중에 위원회가 합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 워크숍에도 동일하게 그냥 의제 그대로 반영해서 갈 건지 이게 조금 약간 혼란스럽다는 거죠.
- 그래서 지금 아파도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론화 의제의 방법,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의제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되게 참여단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적으로 전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론화 의제는 이 5개인데 시나리오 워크숍은 이 프레임으로 갈 거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공론조사까지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 공론화 의제에 맞게 위원회에서 용도 변경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안을 작성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 그래서 프레임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특히 ○○○ 위원님이 예전에 시나리오 워크숍에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준 것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미래상, 즉 전주시 미래에 부합하는 옛 대한방직에 대한 미래상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구성으로써 주거 중심이나, 상업 중심이나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공간구성을 하고, 이것을 더붙어서 연관 검토사항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이랄지 상권이랄지 아니면 개발계획이익의 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어떤 것들을 나눌 것인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작성 기준이라든지 선정 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원래는 순수하게 시나리오 워크숍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저희는 3일로 한정되어있는데, 실은 작성 기준이랄지 선정 안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단들이 제시해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시간적인 원칙이 3일이라는 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이런 걸 모든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 6가지 정도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 첫 번째는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원칙을 조금 규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미래의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합니다.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가자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은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고 비방을 삼가한다.
- 세 번째는 시나리오 작성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상정한 다섯 가지 공론 의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네 번째 시나리오 선정은 각 시나리오를 분석한 후 전체 참여자가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나의 문제거든요. 원칙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은 저렇게 그냥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실은 이게 합의 형성이 목적입니다.
-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장시간 몇 개월, 몇 년이 걸치더라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합의 형성이 목적인데 저희는 3일 만에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정하는 거를 조금 안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제시를 합니다. 이 둘 중에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투표 방식이고요. 5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개를 선정하는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6번이 연관 검토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검토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론조사를 할 건데.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저희가 단일이 나오면 좋은데 3개가 나올지 4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 그렇다면 그거를 공론조사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공론조사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개가 나왔다고 치면 공론조사에서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단을 꾸릴 인원이 예전에 우리가 120명 정도 잡았잖아요. 100명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의 오차범위라고 한다면 진짜 이게 3개를 팔아놓으면 오차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자칫하면 세 개를 가지고 이거를 공론조사를 했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 그럼 어떻게 결정할건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3개 중에 한 개라도 최우선순위가 나오면 그냥 대표로 가장 많이 한 걸로 결정을 할 건지, 그 원칙을 조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시민들한테 또 물을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여단들은 되게 궁금해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는데. 이런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세팅할건지 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그다음에 두 번째 연관 유의 사항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민 의견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쨌거나 최종은 100명이라는 시민참여단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시나리오 워크숍이 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연관 검토 사항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 달라라고 의견을 내면 그 연관 검토사항에서는 그런 좀 여지를 열어두면 좋겠다. 위원회가 아까 마찬가지로 조금은 여지를 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는 룬을 좀 열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권고안을 작성할 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기부채납의 비율을, 적정 비율이 뭐냐가 공론화 의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은 상당히 이게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나중에 공론조사에서 설문으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의 30%냐 아니면 40에서 50%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채택된 시나리오 안에다가 연관 검토사항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다수의 시민의 뜻이니깐. 그렇게 해서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조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 절차다.
- 그래서 저거를 전제를 가지고 시나리오 워크숍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오늘 이걸 정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나리오 작성 양식을 그렇게, 이건 최종 시나리오 작성 양식이거든요. 위에 미래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공간구성, 마지막으로 이제 연관 검토사항을 하고 이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나중에는 만든 사람은 비공개로 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그룹을 다시 편성하고 재편성하고, 저희가 편의상을 제출자는 넣은 것입니다. 최종에 제출자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일단 이러한 양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일 차, 2일 차, 3일 차 프레임을 봤을 때 첫 번째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작성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미래상을 나누고 미래상을 도출하는데 여기서 미래상이 몇 개가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그렇지만 최대한 최소한 많이 줄여서 단일로 나오면 더 좋고요.
- 단일로 나오더라도 시나리오에는 나뉘질 수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상은 최대한 좁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첫째 날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미래상을 좁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는 ○○○ 해야 합니다.’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2일 차에는 그래서 이렇게 미래상이 나오면 미래상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 구성과 아까 연관 검토사항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3일 차에는 이 작성된 시나리오를 숙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단점 토의도 하고 전체 공유도 하고 아니면 조금 유사한 시나리오를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시나리오가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도 공론조사에 붙여야 되니까 세 개 이하면 그냥 가는 거고요. 세 개가 넘는다면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를 조금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중요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작성 원칙에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그리고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생기고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간구성이 가장 아마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일겁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해 봤고 그동안 말씀 주셨던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게 이제 공간구성을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콘텐츠를 묶어서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 콘텐츠에는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예를들어 주거 중심은 아파트, 주택 등 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상업시설 활성화할 수 있는 호텔, 컨벤션, 복합 쇼핑몰 상가 등, 아니면 공공중심은 도서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박물관, 공원 이런 게 공공시설이겠죠.
-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하면 8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이외에도 다른 안은 시민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상태로 놓자라는 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업무 혁신 센터나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런 상가를 조성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안은 그냥 이거 시가 매입해서 공유지화해가지고 뭔가 전주시에 진짜 땅 밖에 개발을 해보자 이런 안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안은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 중심 이것보다는 전주시의 특색을 살려서 전통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전주 영화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살려서 특화를 해보자 이런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위원장	- 투표 방식은 우리가 몇 개냐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 좀 그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나리오 작성 순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먼저 첫 번째는 세부 의제가 오늘에 따라서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세부 의제는 대폭 바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전주시 미래상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을 얘기해 보라 그렇게 일단 조가 편성되어 있죠. 각 조에서 얘기합니다. - 그러면 저 미래상에 대한 게 각 조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각 조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많으면 32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조에 8명이니까 8명이 다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 미래상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상을 도출할 겁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미래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중심, 또 혹은 그대로 유지.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져서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는 순서입니까? - 여기에 미래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미래상이 나왔는데 그 미래상은 주거 중심이냐 상업 중심이냐 공공중심이냐. 이렇게 쪼개보자는 뜻입니까?
○○○ 위원	-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미래상으로 어느 분이 정말 우리 전통을 살리고 문화 콘텐츠를 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문화 콘텐츠 예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 예를 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공간을 구성할 때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담아야해'에 대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거시설을 많이 할 건지 상업시설을 많이 할 건지.
위원장	- 그렇게 재차 물어본다는 그 재차 의견을 내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 위원	- 그렇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해라. 이거죠
위원장	- 네. 그러면 미래상이 도출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4개의 미래상이 나왔다, 각 조별로. 그러면 이 그 미래상에 따라서 32명을 그 미래상에 따라서 조를 새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까?
○○○ 위원	- 편성을 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미래상으로 가는 거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 조로 가서 그 미래상의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 말씀인거죠.
○○○ 위원	- 미래상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요.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합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아 내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의견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의견을 좀 곁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상을 도출하는 건가요?
○○○ 위원	- 네, 그렇게 미래상 결론을 낼 겁니다.
○○○ 위원	- 미래상과 공간구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상에 따라서 이러니까 이런 공간구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그건 첫날 아니고 다음날 넘어간 것인가요?
○○○ 위원	- 네, 미래상까지는 첫 날 하고요. 공간구성은 그다음날 미래상에 따라 조를 다시 편성해서 그 미래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건 2일차에 하는 겁니다.
○○○ 위원	- 위원장님 36p에 세부 문제에 대해서 가/나/다/라/마 5가지 했는데,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언어라서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세부 의제 말을 빼고 공론화 의제, 의제방향으로 미래상 공간 구성으로 해서 연관 검토사항 1, 2, 3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 오늘 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걸 그대로 바꾸려 합니다.
○○○ 위원	- ○○○ 위원님께 질문인데 어쨌든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한 3개의 안을 만들면 공론조사에 세 개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가는 겁니까?
○○○ 위원	- 세 개로 가는 겁니다.
○○○ 위원	- 또 한 가지요. 그럼 세 개 중에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의 의견을 결과로 보고하는 겁니까?
○○○ 위원	- 그건 여기서 결정해야합니다. 한 개만, 두 개만, 세 개만 어떻게 할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 위원	- 첫 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종 시나리오를 공론조사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 개 이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세 개를 가지고 의견 지형을 보고서를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 왜냐하면 그 안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견 지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안이라고 하면 어떤 세팅된 결정된 안으로 했을 때 오는, 자광과 최종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 협상의 폭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최상인데 하나의 안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는 거구요.

	- 두 번째는 세 개 안에 대해서 결국에 나중에 쟁점 사항을 붙이는 방식의 문제잖아요. 이번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어느 형태까지 만들어낼지 하고 이후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대략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결정되면 최소 시나리오 3개 이내, 세 개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3개 이내'면 최대 3개입니다. 이 표현의 방식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문제가 하나 있고요. -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에 주거 중심이라고 해서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여기에 상가라든지 상업 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업 용도가 일부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지 근린생활시설 팔호 열고 소규모 산업시설 이렇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를 상상을 불가하게 만들거든요. 상업시설을 전혀 배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 우리가 일단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중심, 기타 이 4개의 부분이 좋은 건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에 세부적 표현은 조금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크게 주거 중심/상업 중심/공공 중심/기타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것만 먼저 크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 또, 하나 미래상의 숫자가 줄어들면 시나리오가 조금 구체화되어질 수 있고, 미래상의 숫자가 많아지면 시나리오의 저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미래상의 숫자부터 우리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숫자를 결정하느냐 하는 얘기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 위원님이 충남 100여 명의 공론화 공청 회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제 생각은 용도, 공간구성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밀도 개념은 빼고 비중 중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제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공공 중심이라는 건 이게 전주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고 안건으로 던져야지, 전주시 입장에서 이 토지를 민간 기업한테 전주시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대안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럴 재정적 여력도 없는데 만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제 시나리오로 차후 결정이 되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공공중심의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주시 입장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 상업 중심이라는 건 결국 자광의 안인 겁니다. 상업 중심을 많게 하냐 적게 하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광의 안대로 상업 개발과 주거 개발을 복합 개발 안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서는 주거용지 개발로 참여를 했으니까

자광은 정해준 대로 주거지 개발을 해라합니다.

- 저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결국 줄여나가면 공공중심의 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리고 자광 안대로 복합 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전주시가 정한 대로 주거 중심으로 할 거냐. 결국은 시나리오는 세 개 많으면 세 개, 전주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두 개밖에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 공간구성은 우리가 그림만 예쁘게 그려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론화 의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소위 개발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거지 개발로 갈 거냐 복합 개발로 갈 거냐 공공용지로 조성을 해버릴 거냐.
- 개발 방향이 정해지면,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변경을 해야 하는 데 사실 주거지 개발로 가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공론화 위원회 향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 두 번째 안으로 갔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지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지 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에 대한 이득을 얼마큼 환수할 거냐 이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 거고요.
- 세 번째는 전주시가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광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광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이 안대로 전주시가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던져주면 공론화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도 너무 이렇게 몽상적인 안을 만들어 던져주면 전주시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서 사업 방향을 정하는 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공론화 의제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거 보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셔서 개발이익 환수 방향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행정의 문제이지, 주민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법에도 제도에도 없는 이만큼을 뭘 해라라고 제안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대안으로 처음부터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가 있으니, 그거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제3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냐, 없냐 이 정도의 제안은 가능하겠죠.
-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검토도 사실 주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 할까. 저는 교통성 검토나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의 결과를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것들은 사실 자광이 만든 안이죠.
- 그리고 옆에서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 이런 안이 과다하게 추정됐던

	과소하다 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떨 것이라고 느낀다는 정서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을 주민들이 의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 우리 그동안 ○○○ 박사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앞으로 다 이 단어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 위원님이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사항에도 없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계획이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이게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계획이득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개발이익 환수란 법률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정해진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했을 때는 한 몇 십억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	-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자문단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위원	-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득에 대해서 이것을 환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환수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나름대로 이런 데는 공론화할지 논의는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그냥 물론 행정에서 다 나중에 조치를 하는 거고. - 또 하나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 그것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용지로 지금 자광에서 제안한 안을 받을 때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주거용지로 가는 것도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전주시 사항이죠. 전주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아까 말씀한 그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이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 그러면 먼저 논의 내용 중에 공공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방향으로 넣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전주시가 공공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나?
○○○ 위원	-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지금 공공중심이라는 것을 전주시가 할 수 있냐를 얘기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전주시 관계자	-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 다만, ○○○ 위원님이 공공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은, 미래 상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할 때 너무 제한하지 말자. 다만 공공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실현 가능성, 타당성 이런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해주시고.
○○○ 위원	-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공론화를 할 때 어떤 제한된 틀을 주고서 거기에 이게 실현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해해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 지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그대로 참여자한테 주고 할 건지 아니면 프레임을 안 주고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모더레이터가 이거 주거 중심에서 상업 중심의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갈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됩니다. - 지금 현재 여기서 주거 중심이냐 상업 중심이냐 공공 중심이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시나리오 숙의를 해서 평가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이 미래 예측 가능하냐, 그리고 중요하냐, 실현 가능하냐 이거를 정해주면 실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앞에서 이 부지가 어떤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유지다. 사유지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공공 시설을 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민들은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봐서 시나리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인 거지. 처음부터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공론화는 '그럼 왜 불렀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 위원	-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주거/공공/상업 중심의 실현 가능성 차차 하더라도, 상업 중심 이 문제는 일단 저 중에 하나 어떤 시설이든 호텔이 들어가든, 컨벤션센터가 이 비중에 상관없이 하나로 들어가면 상업적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 그래서 이거 비중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에 상업시설을 넣을 것이냐, 말거냐에 훨씬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이 좁혀지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되면 여러 가지 계획 자체가 변경이 해야되는 거죠. -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 아까 도시계획은 변경 안 되는 반면, 상업적인 것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죠.
○○○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 시뮬레이션에 주거중심, 상업중심, 공공중심 이거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외에도 복합적으로 이게 다 주거도 들어올 수 있고 상업시설도 공공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 위원	-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준주거지역만 되더라도 근린 상업 시설로 해서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 구체화는 안됐지만 컨벤션센터라든가 백화점이 하나 여기 들어오기로 하면 그때는 복합이니까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오냐 안 들어 오냐는 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위원장	- 일단 우리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중심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하는 쪽으로 해도 될런지요. 나중에 실현 가능성 검토에서 제거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 분류하는 자체에서는 조금 오픈하자 이 정도로 조금 논의를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이게 예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예시가 있으니까 논의가 좀 구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워크숍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예시는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두 번째 이 주거, 상업, 공공 괜찮은데 기타라는 말은 그냥 차라리 현 상태 유지라고 하던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거 중심이라고 하면 전체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팔호 열고, 이 밑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 거에 기본적으로 절반은 녹지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절반은 공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거 팔호 열고 아파트, 주택, 주거, 오피스텔 한 다음에 주택 중심 플러스 알파에 아까 말했던 녹지는 공공이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시로 표현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 위원	- 논의의 순서가 먼저 공간구성을 하고 공간구성이 어떤 중심이냐. 처음부터 주거중심으로 가니까 이거 같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능구성이 먼저잖아요. 기능구성을 논의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기능구성 안은 요약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의 공간구성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 위원	- 그런데 중심시설별 고차, 중차, 저차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 이런 거예요. 주거지역이고 주거 용지도 1종, 2종, 3종, 준주거로 나뉘어요. 그런데 일종은 말이 안 돼. 2종, 3종 준 주거. 그래서 준주거 지역을 놓고. - 그니깐 용도지역의 측면에서 고차 중차 저차로 나눌 수 있는 거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은 고차, 일반상업지역은 중차, 근린상업지역은 저차로 놓자는거죠. 근데 용도지역의 개념하고 약간 믹스시킬 수 있다.

○○○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서 용도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뭐냐면, 고차/중차/저차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나오면 저게 매트릭스가 27개가 나와요.
위원장	- 저는 저것을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시로 줄 것이니깐, 예시로 저기서 고차, 중차, 저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 하는 설명을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 설명을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그것을 약간 차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위원	-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 중심은요. 주거 중심이고 그 밑에 다른 게 있다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세 개 매트릭스를 조합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 그래서 아까 ○○○ 위원님도 그렇게 하니깐 더 헛갈려서 차라리 주거 중심, 상업 중심, 공공중심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구두를 말씀드릴 때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 그런데 그때 막 시설을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도는 아닌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거 중심을 그냥 주거시설, 그다음에 상업 중심을 상업시설, 이렇게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 위원	- 저희는 오히려 저는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이 더 좋고 전에는 기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 기능 중심, 상업 기능 중심 하는 게 더 낫지 시설 단어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모더레이터들이 토론을 할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예요. 예를 들면 중심으로 안 던질 거고요. 여기 공간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콘텐츠를 얘기해 봐. 콘텐츠로 접근할 거거든요. - 예를 들면 호텔에 췌으면 좋겠다 전주시에 호텔이 없으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도시계획 설명을 할 때, 도시계획에서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 위원	- 그런데 그때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고차 중심이라 함은,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의 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중차라 하면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이런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 고차가 뭐지 중차가 뭐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텔이다 이런 내용을 그런 의미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예시로 설명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로 할지 기능할지는 나중에 결정하자. 지금부터는 시나리오 작성 순서로 가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래상 도출이 4개의 분과잖아요. 4개의 분과에서 하나의

	미래상으로 단일화시켜서 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그래도 4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미래상의 숫자를 그렇게 할 것이냐. 물론 미래상이 나중에 쪼개질 건데, 만약 8개가 나오면 미래상에 대해서 8개의 파트로 쪼개어질 것 아닙니까. 저는 미래상의 각 분야별, 미래상의 도출을 어느 정도 숫자로 할 것인지 저것부터 좀 결정해 주세요.
○○○ 위원	- 미래상이 여러 개 나오면 그것을 합의한다는 것 자체는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사를 할 겁니까?
○○○ 위원	- 아니면 여기에 나온 미래상을 방법에 의해서 쪼개버릴 수 있는지?
○○○ 위원	- 저는 그냥 미래상은요 제한을 안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0개가 나오면 합의를 해야죠. - 만약에 미래상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뒤에 여기 시나리오 평가에서 전체적인 합의 방식이 있잖아요. 투표를 할건지 아니면 뭔가 우선순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정해주시면.
○○○ 위원	- 그러니깐 미래상의 숫자를 제한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 위원	-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제한을 하고 가면 미래상에서 또 제한을 당하고 시나리오에서 또 제한을 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상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토론을 하되, 저희가 수행하는 업체에서 최대한 미래상을 조금 좁히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점, 차이점 찾기가 있고요. 뒤에 후 순위 작업이 있으니 제한하지 안 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 그러면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이 방법에 의해서, 우리 공론화 추진하는 방법에 의해서 5개가 됐건 6개가 됐건 최대한 방법을 통해서 줄여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결정하시죠. - 숫자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서 최대한 줄여본다 이렇게.
위원 모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시죠.
○○○ 위원	- 미래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미래상 공통점, 차이점 찾기, 전체 토의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으니깐 우리가 미리 그걸 몇 개 제안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	-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 그다음부터는 담겨야 할 콘텐츠 부분입니다.
○○○ 위원	- 저희는 기능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렇다면 이 미래상에 담겨야 할 콘텐츠,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좋고, 이것을 ○○○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거중심, 상업중심, 공공중심 그 다음에 현 상태 유지 이 정도로 예시적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이제 고, 중, 상 그렇게 돼 있죠.
○○○ 위원	- 근데 그게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 위원님이 우리가 주거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파트냐 저층이냐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같은 주거 중심이라도. 저는 이왕 저 표가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데 저기서 고/중/저로 나누고, 주거중심에도 고/중/저로 나누는데, 그 고/중/저를 주거라고 할지라도 고를 준주거지역, 중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저를 2종 일반주거지역 개념으로 설명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 상업지역의 개념으로 고/중/저를 비교를 할 수 있고 공업지역도 지금 공업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첨단공업 지역이냐 준공업지역도 있고. - 저는 그런 개념으로 고/중/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중심 상업 지역에는 호텔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상업지역에서 호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전주시 관계자	-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저 표를 예시로 조금 보여주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같은 중심이라도 고/중/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어느 중심이냐 하는 것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 저는 시민참여단의 논의를 예를 들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하면 소분류 빼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복잡해요.
○○○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대분류고 중분류까지는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 위원	- 저는 저 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안으로 가지고 자광 안 프레임이라고 보이고, 저걸 보여주는 순간 프레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표는 빼고 아까 전에 공간구성을 예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	- 지금 저 표가 매트릭스로 있다 보니까 저거 3개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나 하면 주거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중/저, 상업 고/중/저, 공공 고/중/저 이렇게 해서 아까 콘텐츠로 나오면 그 콘텐츠가 여기 주거, 상업에 고/중/저 중에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다 갈 수도 있어요. -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나중에 공통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위원	- 저도 지금 궁금해서 ○○○ 위원님께 여쭙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중도 있을 뿐더러 '고/저'가 있는데, 주거 중심의 고라고 하는 것은 주거 기능을 많이 보유한, 또 상업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기능이 많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주거 단지라고 해서 거기가 상업적으로 상업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1종, 2종, 3종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나는 왜냐하면 같은 주거 중심이라도 저층 중심이냐.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아파트도 고층으로 가서 무조건 아파트 뭐 삼십 몇 층으로 올릴 거냐. 그런 개념으로는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서 논의의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매트릭스를 안 보여줘도 좋고. 의견 얘기하세요.
○○○ 위원	-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 중심으로 할 거냐, 공공중심으로 할 것이냐, 상업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 논의의 차원이자 공공중심, 상업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주거도 들어가 있고 공업도 들어가잖아요. - 그래서 고/저가 있는 거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1종, 2종, 3종, 근린 시설 나누는 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저는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개념을 잘 설명을 하자는 얘기지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 위원	- 저 표 아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2종, 3종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도 상업 용지의 고와 저의 의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아까 이 정도 한 줄씩만. 왜냐하면 저는 예시가 있는 게 뭔가 이분들이 비중을 둘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 표는 그대로 두되 아래에다가 고/저에 대한 설명만 넣자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매트릭스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설명으로만 갈 것이냐. 의견 주세요.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이렇게 열거를 하게 되면, 그 콘텐츠를 어디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주거지역의 비중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냐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 그런데 여기서 어떤 콘텐츠에 가겠다. 그런데 그것을 주거지역이 많은 쪽으로 붙는다. 이것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	- 저는 최종 결과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엇을 시나리오워크숍에서도출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최종 결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파트 층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시가 나중에 어차피 자광하고 시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 그냥 경향적으로 그렇게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경향성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워크숍의 내용이고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세분류까지 도표화한다고 하면 저는 시민참여단 머리 아파서 이 시간에 결정을 못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 아파트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중 분류 너무 복잡해지는 논의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주신 서식의 공간 구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	-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간구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참여단에서 3안이 나왔어요. 주거중심으로 가되 일정 정도의 상업시설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공간구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3안으로 하면 나중에 용도 변경은 그냥 주거지역으로 하면 되는 거죠. - 그런데 예를 들면 2안으로 갔어요. 주거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 비율도 높고 공공시설 비율도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은 주거 비율도 높으면 거기에 몇 천 세대 아파트를 짓든 상관없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비율도 높으니깐 거기에 백화점 컨벤션이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도 많이 받고. 그냥 그럴수도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시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1에서 8 안까지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다 나온 거예요. 저 3개로 조합을 하면 더 이상 그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없어요.
위원장	-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저기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예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저게 나오려면 저렇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거중심, 상업 중심, 공공중심, 현 현상 유지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보여줄 뿐이지 이렇게 짜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콘텐츠를 얘기를 하게 하면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좋지만, 전혀 다른 어떤 콘텐츠와 공간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야 해요. - 그런데 저것은 그렇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거지. 그런데 저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 위원	- 그래서 모더레이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물어볼 때 이게 너무 어렵게 여기에 막 몇 종이나 이렇게 용도를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헛갈려서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모더레이터들이 그래 좋다 여기 대한방직에 이제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토론하다 보면 백화점에 들어가야 한다, 아파트를 짓자하고 공원 만들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 모아서 각 생각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더레이터들이 나중에 분류 작업, 콘텐츠 분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거시설끼리 묶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오고 주택 들어오고 이런 거 직접 들어보고, A라는 사람은 나는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여기다 공원 만들자라고 하면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그 사람 기준으로예요, 이건 전체 그룹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콘텐츠를 저 세 가지 카탈로그로 분류를 할 거예요. - 이거는 주거시설이네요. 이거는 공공시설이네요. 이거는 상업시설이네요. 이렇게요.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잖아요. - 그리고 나면 저 분류표에서 도시계획상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짓고,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 호텔 이런 건 아니고, 아파트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상가 정도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하면, 주거비율을 저 표에서 보면 높고 상업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공원도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시설에 들어왔으면 공공시설도 어느 정도 높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 그러니깐 모더레이터한테 주자라는 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까 ○○○ 위원님은 그냥 저 정도는 그냥 원활한 시나리오워크숍을 위해서 참여자들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집에 넣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떨겠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동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다 끝을 내야 합니다.
○○○ 위원	- 그런데 저는 주거, 상업, 공업이 전부다 '고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 지역이 높는데 어떻게 상업지역이 높을 수 있어요?
○○○ 위원	- 저걸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메트릭스를 봤을 때, 1안 하면은 1안 이잖아요. 그러면 세로로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 위원	- 저는 이런 논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모더레이터한테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면 개발의 콘셉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입 기능을 정하는 거죠. 도입기능이라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문화기능 등 이런 게 도입돼있는 거고, 그 도입기능이 결정이 돼요. - 도입 시설을 좀 주거 기능이면 아파트만 할건지, 단독주택을 할 건지, 연립 주택을 할건지,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할건지 뭐 이런 시설들을 정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틀의 도입기능을 받아내고 그러면 그 도입기능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원하는 도입 시설은 무엇인지 그런 묶음을 도출만 하고 저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들이 나중에 결과 안을 정리하는 정도로 쓰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 좋습니다. 결정 났습니다. 시나리오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오픈하되 너무 많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숫자를 가급적 줄인다. -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아야 할 콘텐츠 저희들 도시계획적으로는 도시기능이라고 법적으로는 도입기능이라고 합니다. 도입기능이라 표현해도 좋고 시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담아야 할 콘텐츠 도입기능이 무엇이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더레이터 분들께서 저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안이 가장 높으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의 없죠? 그러니까 저 안이 8가지 안이다 하면 그것에서도 어떤 숫자까지 우리가 자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 위원	- 첫 번째는 일단 기능 시설 이거는 전문가 어프로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시민들에게 오픈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논의가 정리되면 당연히 모더레이터와 시민들과 우리끼리 이거 맞느냐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 지금 처음부터 이걸 보여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 저 작성하는 것은 미래상에 대한 도입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결과를 가지고, 모더레이터들이 저런 표를 만들어서 이게 맞느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맞죠. 확인하는 절차는 안 거칩니까?
○○○ 위원	- 확인하는 절차는 안 거칠 거고요. 모더레이터가 저 표를 참조를 해서 콘텐츠가 나오면 콘텐츠를 분류하는 작업에 참고해서 활용한다.
위원장	-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확인할 필요는 없을까요?
○○○ 위원	-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어떻게?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

○○○ 위원	- 그러니까 모더레이터가 참조할 수 있는 저런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위원회에서 동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했더니 저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대해서.
○○○ 위원	- 그렇지만 1안, 2안, 3안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	- 네네. 안 보여주고요. 시나리오에다가 쓸 때 모더레이터가 분류를 할 거잖아요. 주거중심 비율이 훨씬 높고, 상업은 이러한 시설만 들어오고, 공공시설은 이런 것들을 해서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거잖아요.
○○○ 위원	- 그런데 질문, 모더레이터가 7명, 8명이 있죠. 지금 7명 8명이 지금 거기에 모더레이터 한명이 들어가 있죠. 그분이 그 구성원들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거죠. 모으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 위원	- 예. 들어봅니다.
○○○ 위원	-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이 분의 의견은 3안 정도다 저기(표)에서.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1안이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봤더니 한 사람은 5안이더라. 이렇게 쪽 빼서 8가지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중에 똑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의견도 있을거예요. - 그러면 좁혀진다고 보면 7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이런 안이 나오니까 해서 전체 회의하는 데다가 오겠죠. 와서 지금 4개 그룹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모이면 그것을 합산을 합니까?
○○○ 위원	- 합산을 합니다.
○○○ 위원	- 합산을 해서 어떤 의견으로 되겠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겠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대충 나오겠네요. 합산하는 절차는 우리가 방법을 정해야 되죠. 어떻게 합산을 할건지. 그런데 7명, 8명이 그 그룹에서 모더레이터가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서 이게 판단해 본 건데, 3안이다 아니다 2안이다, 아니다 5안이다 이렇게 해서 7분, 8분의 의견을 다 모을 거예요. 모아서 이제 모더레이터들끼리 전부 모아겠죠. - 모여서 전부 합해보겠죠. 합해 봤더니 대충 이 가닥, 이 가닥 가닥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저기 있는 8개 안이 될 수도 있고. 8개 안이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지는 나중에 우리가 정해야되는 문제고요. -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1, 2, 3안을 정하자. 너무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3개만 하자, 그러면 3개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할건지는 방법을 정해주겠죠. 지금 그러는 겁니까?

○○○ 위원	-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저도 질문을 한번. 지금 어떤 팀에서 의견을 모더레이터들이 수집을 합니다. 모더레이터는 이제 의견들을 듣고 나서, 저기에서 고/고/고라고 이렇게 찍는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 위원	- 이런 경우요. 주택으로도 45층 주택으로 짓자. 크게 짓자. 그 밑에도 상업시설도 짓자. 거기다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짓자.
○○○ 위원	- 아니요. 한 가지를 많이 하면 다른 것은 해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줄어드는 경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종의 문제지, 범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 위원이 보더라도 고/고/고가 나올 확률이 없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 위원	-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전부 다 녹지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안까지도 전체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미리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조 안에서 거르고 봐야하느냐.
○○○ 위원	-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서 전체 모더레이터들이 모여서, 모더레이터들이 가지고 온 안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중에서 나중에 선택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나온 것들을 선택할 때 그건 탈락되겠죠.
○○○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고/고/고나 저/저/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	- 이론 쪽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하면, 용도 지역에서 종의 문제랄지, 강력한 용도지역. 그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 위원	- 아까 그래서.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중도 하지 말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고/고/고라고 하는 것 실은 거기에 진짜 대형 상업 시설이 들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 위원	-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도 좀 넣고, 내가 쇼핑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백화점도 들어오고, 영화도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리고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고'의 개념이죠.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론상으로 저렇게 해 놓은 거고, 결국은 그 세트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 위원	- 아니. 그것 전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했나요? 제 생각에 미래상이 있고 그 미래상에 유사하게 그 조별이 모였으면, 지금 현재 ○○○ 위원님 설명으로는, 조에서 모더레이터가 아무런 조정 기능이 없이, 개인한테 물어보고 아까 여기 1, 2, 3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그대로 정리만 해서 전체의 모더레이터들 세션이든, 다음날 세션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미래상에 맞춰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하고 뭔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건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 위원	- 당연히 논의 할 거고요. 시나리오를 나중에 숙의해서 이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도 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	- 그러면 그다음에 선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	- 그래서 이 방법은요. 이거를 제가 평가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위원회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실은 이제 원래는 합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공론화의 원칙은 대부분 합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만장일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 번 숙의해 봐도 만장일치 합의가 나온다는 거는 못하잖아요. -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평가할 때는 저희가 시나리오가 3개든 5개든 나오면 5개를 넣고서 일단 숙의를 할 겁니다. 숙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연관검토사항도 집어넣고 시나리오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조별로 발표하기도 시키고 이 과정을 할 거거든요. -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너무 많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합니다. - 하나는 중요도,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전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중요도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응해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파도 이야기 했지만 전주시가 이것을 못하겠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조금 중점으로 해서 토의를 하게 한 다음에 토의를 할 겁니다. - 또 무조건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뵈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한 바퀴 돌며 토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중요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중요도 측면에서 중요할 거냐. 물을 거죠. 5개를 말고. -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방법을 첫 번째 하나 그냥 투표를 해서 이 중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두 개를 골라. 그러니까 저희가 3개까지 고른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한 개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선택한다든지, 세 개를 생각한다든지 해서 멀티 투표를 하자는 거죠. - 나중에 투표를 해서 제일 득표수가 많은 걸 선정하게 할건지, 시나리오가 우리가 진짜 작업을 해서 5개가 나왔는데 이중에 뭐 다 중요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다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 배제하지 말고 그냥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자. 5개면 어떤 게 제일 1번이고 그다음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인지. 그거를 정해주면. 32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점수화를 해서 그중에 3개만,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3개만 선정을 하자 이게 2안입니다.

○○○ 위원	- 끝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 위원	- 이제 각각 개인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원래는 약간 사고를 위해서 두 개 비교해서 저희가 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우선순위를 이게 시나리오가 많으면 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3번하고 4번 비교해서 표를 드리면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해. 1번보다는 3번이 더 중요해 라고해서 조금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만약에 5개 시나리오면 거기에서 1, 2, 3, 4, 5번이 나올 거 같아요. 개인이 생각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 참가자가 32명이잖아요. 32명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개인이 각각의 우선순위를 다 평가를 해서 매겼잖아요. - 그러면 저기에는 지금 제가 제시한 건 10명을 가지고 위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4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A, B, C, D가 나왔으면 순위를 다 다르게 매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 그런데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거는 이게 점수 설정 방식에도 역점수 순위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서 하는 점수 산정 방식을 했는데, 저 기법은 약간 1순위에 조금 많이 점수가. 왜냐하면 1번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점수화를 시킨 거고 그게 이제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두 개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두 개를 그냥 단순 합산했어요. 단순합산해서 그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것 3개를, 점수가 높은 것 3개를 선택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 위원	- 시나리오가 저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데 5개, 6개, 7개, 8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 6개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제 7, 8개 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1번, 2번 가다가 나중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위로 갈 때, 뒤에 가서는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버립니다.
○○○ 위원	- 그래서 그 순위 정할 때도 저희가 쌍대비교법으로 1번 하고 2번, 1번하고 3번, 2번 하고 4번 이렇게 짝 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쌍대 비교로 보면 일단 그 계산을 나중에 용역팀에서 하는겁니까?
○○○ 위원	- 해주실 겁니다.
○○○ 위원	- 계속 질문. 그래서 저기 중요도를 보니까 1, 2, 3, 4 지금 순위로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뒤에 중간 그 부분은 중요도를 앞에 걸로 할건지 뒤에 걸로 할건지를 정할 겁니까? 앞에 걸 넣을 건지. 시나리오 중요도 순위를 할건지 점수로 할 건지

○○○ 위원	- 아니요. 점수는 아니고요. 그냥 순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이어야 하잖아요. 점수로 매기라고 하면 되게 복잡해서 그냥 4개 시나리오에서 1, 2, 3번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저 표에 따라서 용역팀에서 계산해서 점수를 딱 알려줄 겁니다.
○○○ 위원	- 점수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1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점수를 주었어요. 아까 본 게, 1순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중에 중요도 점수에 보게 되면, 밑에 평가 결과에서 시나리오 A가 현저하게 높아요. - 그리고 저 밑에는 다 오십보백보예요. B, C, D는 15.4, 13.8, 19.2 오십보백보. 그런데 A만 22.1 나와 있어요. 저렇게 웨이트를.
○○○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더 길어지면 뒤에 가서는 그냥 대충 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1,2번 정도만 고려를 하고.
○○○ 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3개를 선택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 위원	- 4개 정도 되면 저렇게 안 해도
○○○ 위원	- 지금 4개 나온다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 위원	-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나치게 1순위에 대해서 중요도 점수를 과도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 위원	- 저도 약간 이 부분이 가중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데, 가중치 부여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가중치 없이 가면, 순위만 더하면 낮은 게 1등이고 가장 직관적거든요. 그런데 가중치라는 게 하는 왜 여기는 두 배씩 뛰었냐, 이래버리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단순 합산은 어떤가요?
○○○ 위원	- 단순합산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화가 돼 버려요. 1등하고 4등하고 중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AHP도 되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AHP 하기는 쉽지 않아요. -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 저희가 저 웨이트를 주지 않고요, 저 밑에 점수 산정 방식 있잖아요. 저것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나중에 일단 순서대로 가중치를, 웨이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왜냐하면 그냥 그쪽으로 하시고, 일단은 큰 방법부터 투표 방식이냐, 아니면 우선순위 점수 산정 방식이냐 이런 것부터 좀 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심플한 게 좋습니다.

○○○ 위원	-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투표방식하고, 투표 방식이면 제일 직관적이기는 해요. 투표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기는 한데. 공론화의 취지는 투표 방식을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낸 의견들은 그 어떤 의견이라도 존중해야 하는 게 공론화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직관적이죠. 그렇잖아요?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굳이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숙의 할 이유가 없고, 투표해서 결정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공론화에서는. 투표는 지양하면 어떨까라는 게 취지입니다.
위원장	- 그런데 이제 앞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8개 안 그 중 한 6개의 안이 나왔다고 보잖아요?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안이 한 6개쯤, 6개 나왔어요. 그런데 6개 안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6개 안으로 합의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방식이 됐든 우선순위 선정 점수 방식이 됐던 어떤 숙의를 통한 후에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의 유도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봐야지. 물론 합의 유도를 한 번은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어렵다고 보고 ○○○ 위원님이 투표 방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는 우선 순위 점수 산정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모두	- 이걸로 하시죠.
위원장	- 우선순위 점수 방식으로 간다. 투표 방식은 안 하고 우선순위 정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선순위 점수 방식에서 저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 위원님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도, 실현 가능성 좋습니까?
위원 모두	- 네
○○○ 위원	- 실현 가능성은 중요도라는게 좋아서 중요할 수도 있고, 흔히 그냥 행정학에서는 대안 선택할 때, '소망성' 이렇게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썼어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도라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 위원	- 그거를 처음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쓸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안은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택하려고 하는 단어가

	뭐가 없을까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게 이제 중요도인데요. - 특히 우선순위를 할 때는 대부분의 우선순위는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긴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일 뿐이고 더 좋은 용어를 제시해 주시면 저는 바뀌도 좋습니다.
○○○ 위원	- 교과서에서는 소망성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하다는 의미거든요.
○○○ 위원	- 아니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어쨌든 질문은 할 것 아닙니까. 중요도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할 거니깐.
○○○ 위원	- 앞에 있는 우리 미래상에, 미래상에 적합한가.
○○○ 위원	- 이 시나리오가 전주 시민의 삶의 바람직하냐
○○○ 위원	- 미래상에 적합하냐.
○○○ 위원	-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래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이상할거 같은데요.
○○○ 위원	- 차라리 그냥 중요도로 가고,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시는게 어때요.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죠. 두 가지를 묻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다만 중요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더레이터가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 중요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 첫째 희망, 미래상, 소망성 등 또 뭐니까. - 중요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소망성, 바람직한 영향력 없습니까?
○○○ 위원	- 긍정적인 영향
○○○ 위원	-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위원장	-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해달라는 겁니다. - 네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한다. 그러면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됐습니다.
○○○ 위원	- 점수는 저걸로 합니까?
○○○ 위원	- 네
위원장	- 점수도 산정 방식 저것으로 갑니까?
○○○ 위원	- 저게 실은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 방식은 아니고요. 밑에 점수 산정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 저 점수 방식 그대로 간다. 네 결정합니다.
○○○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같이 순위가 딱 나오겠죠. 시나리오별 그러면 1, 2, 3, 4, 5, 7, 8 나왔습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로 갑니까?

○○○ 위원	- 아니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점수를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그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3개를 선정한다.
○○○ 위원	- 3개. 그럼 시나리오가 세 개로 딱 압축이 되네요. 세 개요? 두 개요?
○○○ 위원	- 그걸 여기서 정해주세요.
위원장	- 그러면 이다음 단계는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단계죠, 그렇죠? 공론화의 단계죠. 조사 단계요.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 우리가 4개가 나왔던 3개가 나왔던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까? 이런 시나리오 점수 없이 물어봅니까?
○○○ 위원	- 아니면 점수 없이 물어볼지. 그것도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 점수 없이 물어볼 거냐.
○○○ 위원	- 일단 3개가 선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 3개가 되었건 4개가 되었건 다 물어보는 겁니까,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 위원	- 아까 최종 공론화, 공론조사 가기 전에 몇 개의 안을 가져 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3개가 낫다고 봅니다.
○○○ 위원	- 세 개 정도면 좋죠.
위원장	- 그러면 3개만 묻는다.
위원 모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점수를 밝힐거냐 안 밝힐 거냐.
위원 모두	- 안 밝힙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안 밝힌다. 그래서 묻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오니까. 됐죠. 거의 다 결정되어 갑니다. 그다음 하나에 여쭙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은 우선 전문가 영역에서, 결과를 보고 전문가 영역으로 넘기는 거죠?
○○○ 위원	-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앞에 시나리오 워크숍의 의제와 공론화 의제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번이거든요. -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타 용도 변경 가능성 이거는 나중에 시나리오 워크숍까지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따르고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온 것들을 가지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견을 넣겠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화에서는 용도 변경까지는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문가의 우리 공론화위원과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긴다. 맞죠.

○○○ 위원	- 괄호 열고 용도 변경 비율과 구체적 내용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괄호 열고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 위원	- 제가 시나리오 워크숍을 해서 시나리오 안이 1,2,3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판단이 가능하지않아요.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의 사이에 사실은 각 시나리오별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론조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공론조사에서 이야기 할 것인가. - 저도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워크숍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하더라도, 시나리오 1,2,3이 정해지면 각 시나리오는 A라는 시나리오는 이러이러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론 조사 가서는 얘기를 해줘야 않겠어요?
위원장	- 동의합니까?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저기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시나리오를 보면 용도의 방향이 나온다 용도 변경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론 조사에 들어간다. 동의합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고 공론조사에 들어간다
○○○ 위원	-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3개 시나리오가 됐을 때 기타 아까 우리가 검토사항이 있잖아요. 기부채납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론조사로 가기 전에 나올 수 있을지
위원장	- 예. 네 그것을 물을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얘기되었는데 3, 4, 5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계획이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언제 물을 거냐.
○○○ 위원	- 저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이걸 다 수치화하거나 정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정량화를 시킬 수 있는 대략적인 것이 되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 하는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론조사로 나갈 때, 어느 정도 우리 아까 테이블처럼, 어떤 요소들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별도로 시나리오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이 정량의 수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 첫 째, 그럼 어느 단계에서 얘기를 할까요? - 그러니까 공론화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정해졌다면?

○○○ 위원	- 공론 조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보충해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 논의를 해야죠. 어느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논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시나리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상권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말고 또 하나를 제도 변경 또 하나 이렇게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같이 그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였는지, 한 번 전체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	- 저희가 공론조사는 정해지고 나면 하루 정도 토론을 하잖아요. - 토론을 할 때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쟁점부터 다시 또 이야기가 되면서 이렇게 3안인 시나리오가 나왔고, 이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된 근거들입니다. 데이터가 붙어서 시나리오별로 설명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공론조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달라붙어야하는 근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전문가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여기에 저희들은 아까 모더레이터 사전 워크숍 자료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좀 띄어주시죠. 제2일차 프로그램. 여기에 시나리오별 장단점 토의를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 개발이익환수 아닙니다. 여기 좀 지금 바꿔주죠. 지금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 첫째가 교통 등 기반시설, 기반 시설 괄호열고 교통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획이득 환수.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제도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제도변경은 나중에 여기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남을 얘기인 것 같아서 굳이 제도 변경까지 오히려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기 2일차에 의하면 시나리오별 장단점 토의를 하고 저기까지 얘기를 하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는 여기 연관 검토사항에 이 부분이 정리된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오픈된 그대로 다 띄웠으면 좋겠어요. 분량도 신경 쓰지 말고,

	단어도 신경 쓰지 말고. 저분들이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오픈으로 다 썼으면 좋겠다. 그걸 브리핑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오픈해서 쓰고 싶은 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찬성입니다.
○○○ 위원	- 최대한 의제 3개를 담아야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의제를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연관 사항을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그 조에 시나리오가 가면, 그다음에 저는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것, 상권에 대한 것, 계획이득의 환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세 가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저 상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계획이득에 대한 환수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이 얘기를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그룹에서 저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공론화에서 정리를 한번 위원들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지금 이 세션이 그런 방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두시부터 장 단점 토의를 하고, 2번이 그런 세 가지 내용이니깐.
○○○ 위원	- 그래서 저 내용을 아예 주고 그 시나리오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저것은 의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해 보는.
○○○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시점에 아까 시나리오 평가가 이루어져서 3개가 결정이 어느 시점에 납니까?
○○○ 위원	- 이게 자꾸 중간에서 제한하고 이러면 되게 안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연관 검토 사항까지 다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면 그게 뭐 7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여기서 나올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별로 공간구성은 이렇게 되고 연관 검토 사항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서, 그냥 시나리오 풀세트를 만들고, 나중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봐서 가급적 대신에 평가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시나리오 3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다만 그 연관 검토 사항은 실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공론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론화에서, 시나리오 1, 2, 3번의 선호도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설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번 주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

	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시민들이 이게 다수로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 위원회가 자꾸 이걸 검토해서 넣고 빼고 이런 거는 저는 아무리 저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수준으로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시나리오를 만들 때 작성할 때부터 연관 검토 사항을 같이 의논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공론화 공론조사를 할 때, 저러한 내용도 같이 물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보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주 중심은 시나리오에 대한 물음이지만은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 예
○○○ 위원	- 동의를 하고요. 지금 1일 차, 2일 차 언제 그 3개를 평가를 합니까.
○○○ 위원	- 제 생각에는 3일 차요. 3일차 하고 끝나기 최종 직전에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합니다. 계속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다.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2일차 2세션에서.
○○○ 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2일 차, 3일 차는요 그래서 수정 여지를 남겨두시고요.
위원장	- 지금 안으로서, 지금 안으로서 제2일차 2세션에 시나리오 장단점을 소개할 때, 우리가 지금 연관 검토라고 했던 저 사안도 같이 모더레이터 들께서 같이 묻도록 한다. 주된 내용은 저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할 때는 저 내용은 빼지만 공론조사를 할 때는 저런 내용을 같이 조사해서 나중에 어떤 의견으로 첨부한다. 그렇게 합니다. - 다만, 오늘 토의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1일차, 2일차, 3일차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다시 좀 듣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의 시민 세부 의제 이것을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고쳐주십시오.
○○○ 위원	- 그거 그냥 여기서 결정해주시죠.

○○○ 위원	- 지금 의제의 문제거든요? 의제 문제인데. 보니까 어려워요. 용도 변경, 용도 유지 변경, 계획이득 환수, 적정 비율, 기반 시설, 용량 검토, 수용 가능성, 지역 상권 영향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나온 것은 하나는 가가 전주의 약간 바람직한 미래상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다뤄야 할 콘텐츠, 소위 기능 및 시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관 관련 내용, 이런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검토 여기 세 가지 아닙니까?
○○○ 위원	- 이 기본 틀로 해서 적시를 하되 공간 구성의 표현을 조금은 보완 하자 했던 거예요. 아까 중심이라고 쓸 것인지 시설이라고 쓸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중심으로 됐는데 상업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은 이 정도로 표현할 건지 고민이네요.
위원장	- 그건 정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시설, 기능이 굉장히 딱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주거기능보다는 주거시설이 더 와 닿는다, 그러면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도입 기능, 도입 시설은 분명히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 위원	- 지금 이제 ○○○ 위원님이 공론화 의제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인데, 이거를 여기에 참여자들의 이걸 논의를 하고 이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적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든지 바람직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거를 전문적인 내용은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라든지 변경안은 행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고 계획이득환수 문제도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교통 기반 시설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지. 지금 그 교통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논의를 할 수는 없어요. - 물어보고 이런 거 신경 써줘야 하겠다. 이 정도 밖에 못하지, 그렇게 복잡할 것 같다. 이 문제 해결을 앞두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내놔요.
○○○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연관 검토 상황에 다른 의견을, 그냥 시나리오면 제 예상에는 만약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면, 시민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은 교통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상권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전주시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수준으로 그 시나리오에 들어갈 겁니다.
○○○ 위원	-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면 엄청난 이익이 된 게, 뭔가 계획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획이득 환수를 몽땅 취해야 된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 위원	- 제가 그러면 ○○○ 위원님 여기에 워딩만 좀 부탁드립니다. 건데, 여기에서 그냥 이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이런 것은 모더레이터들께서 이걸 보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중심의 시설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내용까지 저는 의제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아야 할 콘텐츠, 팔호 열고 기능 중심의,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 위원	- 그런데 그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기존에 사전준비위원회에서 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계속 이거다라고 언론 보도 및 전주시가 알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확 고치는 거는 여기에서 진짜 의결을 해서 수정 의견을 한다거나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제에다가 이제 팔호 해서 그냥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이거는 공간 구성을 고려한다고 조금 첨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가서 시나리오 워크숍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의제로 삼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상과 이렇게 이런 공간 구성을 논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자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 의제를 바꾸는 건 조금 아니죠.
○○○ 위원	- 설명을 하면 돼요
○○○ 위원	- 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제는 그냥 놔두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사전 워크숍부터 의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용어를 뜯어고치는 거는 위원회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 시민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포함돼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사전 설명을 다 하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좀 더 낮게 보는게 아닌가.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두 번째 전문가들은 미래상이 정해지면 순서대로 좀 분류하겠다 그러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거죠. 전문가들은 쪼개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 위원	-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위원	- 그건 그때 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아까 공간 구성에서 지금 주거, 상업, 공공은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아니 아니요. 그것은 모두 그 방향은 모더레이터들이 알고 있고 그것은 모더레이터한테 정해진 거예요.

○○○ 위원	- 그게 어떤 거라는 것은 좀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아니요. 설명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주거, 상업, 공업, 기타
○○○ 위원	- 기타가 아니라 현 용도를 유지.
○○○ 위원	- 이렇게 4개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다음 17일입니다. 9시 반부터 등록을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 저희 위원님들은 9시까지 좀 와주시시오. ○○○ 위원님 아홉시에 오면 되겠습니까?
○○○ 위원	-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빠뜨렸어요. 작성 기준 선정안을 여기서 확정하기 전에 이대로 가는 건가요? 그럼 4번만 빼고? 그리고 아까 3개 이내로 하자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	-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는 빼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시나리오 작성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까 회의에 넣으면 될 것 같아서, 회의 운영 원칙이기 때문에,
○○○ 위원	- 2번은 빼고 의제에 대한 전재를 좀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 다시 한 번 저는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0월 17일 9시까지 현장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이제 발표할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기술자문단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 시간이 없긴 하지만 짧게라도 실제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고.
기술자문단	- 제가 오늘 것 밖에 못 들어서.
위원장	- 혹시 이 안을 작성한 오늘 내용을 듣고 혹시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자료는 다 주는 거니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술자문단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안 작성을 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그때는 15분에 20쪽입니다. 20쪽에 15분. 똑같이. 다만 첫째 날 203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시나리오 워크숍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의결된 것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 위원	<사전협상제도 관련 발표>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논의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 위원한테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시나리오 워크숍 위원들이나 아니면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고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 위원	-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는 이 자료를 시나리오 워크숍 할 때, 참여단들도 볼 수 있도록 자료집에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료집에 지역 상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자료집에 지역상인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넣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요. - 그러니깐 이름을 빼시고 넣거나 아니면 시에서 제가 어제 전주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전주 통계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전주시에 백화점이 몇 개 있고 저도 모르거든요. 쇼핑 상가가 몇 개가 있고,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고 이런 자료라도 자료집에 첨부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여기에 넣을까하다가 기술자문단에게 자광 발표 후 교통 등 우려사항이 이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을지 아니면 기술자문단에서 우리가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넣을지 만 좀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발표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 위원	- 그냥 넣어도 1차적으로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논쟁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 위원	- 이 계획이득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 변경, 이것에 관련된 사례는 있다는 거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행위 이것이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획이득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위원	- 실제로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본계획 변경까지 없어서 하는 거여서 훨씬 명분은 더 서는거죠.
전주시 관계자	-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쟁점이 있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위원	- 아니 일반공업에서 용도지역이 바뀌잖아요.

전주시 관계자	- 그것은 기본 계획상에서는 주거 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 위원	- 아니 그럼 용도지역변경으로 안 보는 겁니까? 현재 일반 공업에서 준주거로 바뀌는데요?
전주시 관계자	-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식에서 좀 검토가 돼야해요.
○○○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 저기 이거는 자료집에 넣죠.
○○○ 위원	- 정리해서 넣죠. 이걸 그대로 넣는 것보단.
○○○ 위원	- 자료집을 복잡하게 막 더 막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제가 아까 ○○○ 교수님 자료 넣었으면 좋겠으나, 저기가 추정치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발표하실 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통계치 정도는 소상공인이 어떻게 되고 그 정도는 넣어야 할거 같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자 그러면 사전협상 제도는 자료집에 넣어주십시오. - 또 그러면 앞에 지난번에 한 것 까지도 다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 준비하시는 시나리오 워크숍 준비하시는 팀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안 했거나, 지금 긴급히 할 얘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팀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오늘 12차 이 회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